26과 성전의 예수님 - 황용선 목사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 두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48절을 49절을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어 제가 좀전에 얘기했던대로 누가복음은 인자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 유일하게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잠깐 받고자 합니다.

지금 41절부터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그랬죠?

그니까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였던 육신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신앙의 아주 경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헌을 보니까 실제로 유월절 딱 당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날들을 다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던 겁니다.

집에 돌아가는 와중에 지금 43절 후반부에 그 부모는 이를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소녀였던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부모는 그걸 알지 못한겁니다

모르고 어땠냐?

집으로 간거죠?

그런데 집으로 가는 와중에 언제 알았어요?

잠을 자려고 하니까 하룻길 가다가 보니까 없는거에요.

찾았겠죠?

그래서 그 다시 샅샅이 아들을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 성경에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있잖아요.

시간이 꽤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룻길 갔고 오면 하루 되잖아요?

이틀이 소요 됐다는 말은 샅샅이 계속 예수님을 찾은겁니다.

그만큼 근심하고 고생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인물 보시면요

1번 동행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밑에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무심코 예수님 없이 돌아가다가 사흘간을 찾으며 근심을 하며 고생을 했죠?

우리도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혼자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간절함이 없는 삶 인제 그것은 시간낭비이고 근심과 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거죠.

즉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동행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뭐냐?

부모들이 시간낭비를 했잖아요?

근심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동행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낭비고 시간낭비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근심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그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을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은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고 기도 마친 후에 또 다시 어찌하여 자느냐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또 했거든요.

이 얘기 뭐에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려 나갔을 때 제자들 어땠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허겁지겁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 조차도 예수님 부인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게 있고 시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깨어있는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직장얻기 전에 제가 IMF 딱 걸렸거든요?

그니까 졸업전에 IMF터지고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십군데 직장을 서류를 넣었어요 어땠을까요?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근데 떨어지니까 얼굴에 낙담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좌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교회만 오면 풀이 죽어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놀고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같이 교제했던 한 형제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만일 네가 환란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안 까먹어요.

그 형제님이 했던말.

그러니까 누구든지 환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환란이 있을 때 주님과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문

제가 생기냐면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낙담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던거에요.

시험은 오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언제 기도해요?

시험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 온 후에 기도해 이게 문제야 그래요 안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웃긴 것이 시험이 딱 온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은 오는데 유혹도 오죠.

그 유혹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들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깨어있는 삶 인겁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서 6장 18절 밑에 있죠?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잖아요.

어떻게요?

기도죠.

에~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우리 그럴수가 있잖아요.

말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가끔은 참 우리 육신이 참 그런 것 같은데 형식적일 때가 있다는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안일한 삶 가운데 살다보면 형식적으로 빠지고 어때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것을 주의하라

조심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밑에 예화가 있잖아요?

아프카니스탄의 윌슨이라는 어떤 한 선교사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딱 탔는데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어떤 활주로에서 어떤 사람이 막 오는거에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비행기 문을 열어 달래요

그러니까 스튜디어스가 아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나타나냐고

어?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문 열어주냐고 그래서 하도 막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줬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내로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에요?

파일럿이었던 겁니다.

파일럿.

아 별로 안 웃네?

아 그래서요 실제로 그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거에요

우리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는 삶을 하지 않으면서 착각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두 번째 2번 예수님의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목표가 뚜렷했다.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죠?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같이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래서 4복음에 보면 4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얘기했던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처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어 그 굵은체로 된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확실히 깨닫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소년 예수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말씀이다.

그 밑에 오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는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사명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명확히 알았잖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신분 그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지 분명하고 확고하고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된 백성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뚜렷했죠.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히 영광만 받는다고 하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는 삶의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 하냐?

주님 보실 때 합당하고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갖는 사람입니다.

생기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그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들 밑에 있죠?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런데요 참 웃긴게 뭐냐면 그 밑에 통나무를 베고 자전거 폐달을 밟는 신체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뚜렷한 성과 차이를 보였는데 목표 의식을 가진 그 벌목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나무를 베었고 운전기사들이 트럭에 실어나르는 통나무의 양도 법적 허용치의 60%에서 90%로 많아 졌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 나다는거에요

그 밑에 보면 그런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 단락 굵은체 보면 목표가 희미해지면 나태하게 된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굵은체로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얻으며 성취해야 할 과업이 있을 때 힘이 솟구쳐 오르고 이루어야 될 꿈이 있을 때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어디 책에 보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로 왜 사람이 침체를 하느냐? 신앙생활이요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벌써 6월달이잖아요

사실 이때가 가장 침체할 때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좀 그런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요 일단은 내가 올 초에 신앙적으로 세웠던 그 목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 그걸 까먹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다시 한 번 좀 그것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성을 지닌 예수님의 신 순종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인간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밑에 그 유인물 보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분께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한다는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 중에 5계명이 뭐죠?

뭐죠?

아 진짜 몰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공경하잖아요

근데 이 공경이요 그 제가 들었던 읽었던 책 중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도 기억 나는데

이 5계명이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에요

우리는 그 안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당연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을 섬기는 방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 그 밑에 있죠?

주님은 인격이 아닌 위치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하든 못하든 중요한 것은 부모기 때문에 뭐에요? 순종하라는거에요

사장들도 까다로운 사장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까다롭든 까다롭지 않든 그래도 그 사장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위치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그래서요 우리 자신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자 누가복음 5장 2장 52절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정상적인 어떤 그 성장과정이 있었다

즉 인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났다는 거 잖아요

키도 자랐고 지혜도 자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웠다

이것을 통해서 2가지만 생각해 볼건데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 감에 따라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보세요 키가 자라고 키가 자라죠 신체적으로 자랐죠? 육신적으로 자랐죠? 성장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더 사랑스러웠다는거에요.

이게 중요한거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잠깐 보죠

여기를 잡아 놓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찌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뭐라고요?

더욱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이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납니까?

사랑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질적인 양적인 성장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빌립보서 1장 25절에도

... **너희 믿음의** "뭐라고요?" **진보와** 그랬잖아요

진보 그렇죠?

잠언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믿음의 진보 점점 빛나서 그랬죠?

시간이 자라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어.

즉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시대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위기의식이 없거든요. 아셨습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미 무의미하고 무건조하고 냉랭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에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모습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제가 주안 저기 역 앞에 무슨 병원이죠?

우리 조지웅 선생님 다니는 곳

아 사랑병원

어떤 분이요 저한테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7층을 갔거든요?

어떤 할아버지 좀 상담을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인데 갔는데요

갔어 근데 다 호스를 꽂고 있더라고

저는 시체보는 줄 알았어요

그 생명은 다 있어요

그분들이. 아셨어요?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움직이질 못해요

똑같은 생명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삶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 아니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찮가지로 실제로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셨죠?

그래야 어떻냐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잖아요

여기 그 뒷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

자라가라 그랬죠?

명령이지 않습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꼭 해야되는거에요

반드시 해야되는 겁니다

왜? 명령이니까

그래서요 내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영혼의 위기의식이 없다는 말은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에요

만족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제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거다 그랬습니다

점점 빛나서 믿음의 진보와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알수 있는 게 있죠?

반괄호 2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시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죠?

그리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겼다면 반드시 이런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인물에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돼 있으면 원수조차도 화목된다는거죠?

관계가?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뭐가 있다는거에요?

갈등과 불화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4가지 교훈을 잠깐 배웠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마음을 다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거든요?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확고한 목표를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수시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